

## 제사장의 책무

말씀: 민 18:1-7

요절: 민 18:7

오늘 공부할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책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제사장 직무에 대해 불평했고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의 불평을 잠재웠습니다. 고라를 중심으로 250명의 통치자들은 아론을 탄핵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맡았던 제사장 직무를 폐지하거나 대체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고라를 비롯한 회중의 명망있는 통치자들은 광야의 회중 교회에 대한 만인제사장주의를 내세우며, 아론의 집이 독점하고 있는 교권(敎權)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종교 개혁을 주장했고, 광야의 회중들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고라, 다단, 아비람을 비롯한 반역자들을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권위, 제사장 직분 등에 대한 백성들의 불평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독점적 지위, 권력에 대해서 백성들은 여전히 불만을 가졌고, 하나님은 열두 지파의 우두머리들의 막대기를 거두어 누가 주의 택함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보여 주셨습니다. 주의 성소 앞에 둔 아론의 막대기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론이 평소 잡았던 막대기가 하루 밤 사이에 살아있는 아몬드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 앞에 있는 성도들, 주의 택함받은 성도들, 주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입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보여 줍니다. 아론의 막대기는 바삭 마른 죽은 나무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12 막대기들 중에 아론의 막대기를 살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또 그분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오니라.”(막3:13). 하나님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요5:21). 주께서 원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나오는 자는 누구나 주의 공훈과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부으시고 우리를 영적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책무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공훈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롬9:16).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은 사람의 뜻이나 능력, 지혜, 힘, 가문, 학문, 돈, 성품, 인격, 종교심과 같은 외모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광야의 회중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 불평할 때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론의 제사장 직무는 회중들로부터 큰 도전을 받았는데 이는 그가 이 존귀와 영광, 특권을 취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 앞에 나오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아론의 막대기와 같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있는 죽은 자들처럼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주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2:1). “또 너

회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 하셨으며”(골2:13). 아론의 싹 난 막대기는 성도들의 영적 부활과 훗날 재림 때 있을 문자적 부활을 보여 줍니다. 아론의 싹 난 막대기는 주께서 생명의 통치자이심을 보여 줍니다. 주님은 아론의 막대기를 통해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고 세워졌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 영적 희생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란 사실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집은 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주의 책무를 맡았습니다. 레위 지파 역시 성막에서 제사장들의 지휘를 받아 주의 집을 섬기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이 직무에는 책임과 더불어 위험도 따릅니다. 이들은 주의 성막에서 주께서 명령하신 일을 신신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주를 섬기든지, 책무에 소홀하면 그들 역시 다른 범죄자들, 범법자들과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너와 함께하는 네 아버지 집은 성소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의 불법을 담당할지니라.”(1). 주께서 아론의 막대기에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주께 기름부음 받았던 아론을 지위, 신분, 직무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공개적으로 입증하신 후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너와 함께 네 아버지의 집”은 레위 지파 전체를 말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며, 아론과 함께 하는 그의 아버지 집은 레위 지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중에 택함 받은 민족이라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택함 받은 지파이고, 아론의 집은 레위의 집에서 택함 받은 집입니다. 레위 지파와 아론의 집에 대해서는 광야의 온 회중이 그들을 주의 택함 받은 지파요, 집이란 사실을 정확히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민수기 3:12절, “보라, 나 곧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여는 자들 즉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라.”(민 3:12). 주께서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율법에 기록하셨습니다. 민수기 3:41절, “(나는 {주}니라.) 너는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가운데서 모든 첫 새끼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민3:41). 이스라엘의 통치권은 유다에게,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었지만 주를 섬기는 일, 성소의 책무, 율법 체계 등은 모두 레위 지파에게 속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 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히7:11)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레위 제사장보다 먼저 주어졌는데 백성은 레위 제사장 체계 하에서 율법을 받았다고 합니다. 율법의 핵심이 레위 제사장 체계입니다. 레위 제사장 체계의 핵심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받은 제사장 책무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민8:6)고 하셨는데 이들은 성소의 불법을 담당해야 합니다.

“성소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1)란 말씀은 성소에서 일어나는 불법, 죄에 대해 레위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비 업무를 비롯해서 성막의 이동, 성막을 다시 세우는 일 등에 대해 어떤 불법도 용납해서는 안 되며, 불법이 있을 때에는 그들의 책임이 될 것이란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에 낯선 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이나 부정한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 거룩한 물건들에 누가 죄를 짓는 것들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란 말씀대로 이런 불법을 막지 못하면 레위 지파의 책임입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하는 네 아들들”은 아론의 집을 말합니다. 아론의 집은 제사장 직무를 독점적으로 맡은 가문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의 불법을 담당할지니

라.”(1)고 하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이란 주께서 성막에서 섬기는 일에 관해 주신 율법을 지키고 그대로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불이 아닌 이상한 불을 드리면 그는 죽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조하지 않고 멋대로 기름을 만들면 죽습니다. 주께 헌물을 드릴 때 법대로 드리지 않으면 그들이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헌물을 드려야할 때를 놓치거나 성소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부정한 물건이 놓이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 그런 불법에 대해 아론의 집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불법을 담당할 지니라.**”는 말씀은 주께서 주신 의무와 권리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경고입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권리가 많을수록, 아는 것이 많을수록, 주께 받은 것이 많을수록 그에게 요구되는 책임, 의무도 커집니다. 누가복음 12:48절,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눅12:48). 주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우리가 할 일도 많아집니다. 이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지위, 더 큰 직무를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감당할 책임도 많고 커졌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3: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모르니라.**”(약3:1). 성경을 더 많이 안다는 것은 더 많이 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무지해서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는 받는 형벌이 전혀 다릅니다. 그럼 크리스천들로서 우리가 맡은 책무는 무엇입니까? ❶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기셨습니다. ❷ 복음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❸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해 각양 좋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❹ 청지기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이다.**”(고전4:1). ❺ 우리는 복음의 분배 사역을 맡았습니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고전9:17). ❻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습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벧전4:10). ❼ 우리는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았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고후5:19). 주께 뭔가를 맡았다는 것은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론과 그의 집,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불법을 담당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 역시 이에 대해 담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악한 종, 게으른 종이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으리라.**”(눅12:47). 이는 우리 역시 영적 제사장 직무에 대해 소홀하고 게으르고, 행하지 않을 때 징계, 보상의 손실, 정죄와 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성도들이 성령을 따르는 대신 육신을 따를 때 그는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불법을 담당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16절,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고전9:16). 우리가 주의 성전 된 몸에 죄를 지을 때 성소의 불법을 담당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고전3:17).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 성전이나 회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주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들의 몸입니다. 우리 몸이 주의 전이요, 집이요, 성소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음행으로 몸을 더럽히면 주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주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13절,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그것들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니라.”(고전6:13).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돌 판에 기록된 율법을 바탕으로 한 정죄의 직무를 맡았지만 우리는 영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불법을 담당하리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그것을 주께 받게 됩니다.

2절입니다. “또 너는 레위 지파 곧 네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네 형제들을 데려다가 너와 연합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하려니와 오직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네 아들들은 증거의 성막 앞에서 섬길지니라.”(2). 아론은 레위 지파입니다. “**네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네 형제들**”이란 말은 레위의 아들들 전부를 말합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 고핫, 므라리입니다. 레위는 137년을 살았지만 그렇게 많은 아들들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아론은 이들 중 고핫의 자손입니다. 주께서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형제들을 모두 데려다가 “**너와 연합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하려니와**”란 말씀은 그들을 제사장 직무를 돕는 일꾼들, 동역자들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성막에 와서 제사장들을 돕고 섬겨야 합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휘를 받고, 복종해야 합니다. 고핫의 손자요, 레위의 증손인 고라는 주께서 정하신 이 제사장 체계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집을 영원토록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자기들은 평생 그들 아래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종교 신분제로 생각했거나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생각했거나 아론이 가진 종교적 특권은 반드시 폐지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연합하기를 거부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섬기는 일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주의 백성이고, 다 같은 형제인데 제사장 체계는 ‘**니콜라파**’의 행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이 신약의 크리스천들에 해당하는 교리를 주장하고 신약 시대의 교회 성도들이 구약의 제사장 체계를 주장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구약의 제사장 체계를 인용하고 주장한다면 그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고라와 같이 크리스천들 중에도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을 종교적 신분 제도, 영적 권위,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는 지역 교회나 목사 제도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는 없다, 그냥 모임이 교회다.**”란 사람들도 있고, 성경에 목사는 없다, 목사란 칭호를 없애고, 목사의 직분도 없애고 형제들이 돌아가며 설교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 대언자, 사도, 복음 전도자, 목자와 교사입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엡4:11).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장로, 감독이 바로 목사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먹이고 감독하는 감독자입니다. 목자는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교사를 겸직합니다. 그러나 광야 교회에서 고라가 그러했듯이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든 불평하는 자들, 반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형제들은 장로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목자에게 연합해서 섬겨야 합니다.

다시 2절입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네 아들들은 증거의 성막 앞에서 섬길지니라.”(2).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증거의 성막 앞에서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지성소 안이 아니라 지성소 앞 ‘**성소**’에서 섬기라는 말입니다. 성막 뜰에는 레위인들이 와서 섬길 수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섬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네 아들들은 증거의 성막 앞에서 섬기라.**”는 말씀은 성막 안에 빵을 놓는 일, 향을 태우는 일,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등불을 돌보는 일, 아침과 저녁으로 헌물을 제단에 드리는 일 등입니다. 이런 일은 레위 지파

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할 수 없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성소 앞 제단에서 섬기는 일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진 일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구약의 제사장 직무에 대해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1절,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만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히5:1). 이 구절이 “증거의 성막 앞에서 섬길지니라.”는 명령을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하여 죄들로 인한 헌물을 드렸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렸습니다(히5:3).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섬기고 그들을 위해 희생물을 드리며, 기도하고, 율법을 가르치며 섬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제사장의 직무를 주신 것은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름을 부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벧전4:10).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임명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 직분은 영광스런 일이었기에 고라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시기했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이 직무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히5:4). 아론은 주께 직무를 받아 증거의 성막 앞에서 섬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감독, 교사, 집사 직분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야 취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의 직무를 외부에서 인재를 채용해서 업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은 네 책무와 온 성막의 책무를 맡으려니와 성소의 기구들과 제단에는 가까이 가지 말지니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 또한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3). 여기서 ‘그들’은 레위 사람들을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지휘 아래 제사장을 돕고, 온 성막의 책무를 맡았지만 이들은 성소의 기구들과 제단에는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이 말은 레위인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은 주의 기름부음을 받아 거룩히 구별된 것으로 레위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향로에 향을 피우는 일, 희생물을 드리는 일은 레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성소의 기구들이나 제단에 가까이 갔다가는 그들만 죽을 뿐 아니라 제사장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장들은 레위인 형제들이 분수를 넘어서 행하지 못하도록 지휘, 감독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 또한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얼마나 주의해야 하는지를 엄중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네 책무와 온 성막의 책무를 맡으려니와”란 말씀은 레위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의 업무를 분담해서 그들이 시키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의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책무를 맡아 돕고 섬겨야 합니다. 온 성막의 책무란 말은 성막 경비부터 청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합니다. 광야의 성막은 이동식 성막이지만 훗날 예루살렘의 성전은 엄청난 규모의 크기로 수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레위 지파를 순환제로 나누어 성전에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누구도 제사장의 고유 업무를 대신하거나 월권(越權)을 행사했다는 죽임을 당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너와 연합하여 성막에서 섬기는 모든 일을 위해 회중의 성막의 책무를 맡을 것이요, 낯선 자는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라.”(4). 레위인들의 직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너와 연합하여”란 말씀

은 구약 뿐 아니라 신약 교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연합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지어 주시면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잊지 못하였느냐?”(마19:5). 레위 사람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불평이나 반역을 하지 말고 연합(결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창녀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사람이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와 결합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전6:17).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야 합니다(골2:2). 주와 연합된 자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골2:19). 주와 연합한 자는 주의 공급에 의해 자라고 스스로를 세웁니다.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엡4:16). 레위의 자손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연합하여 그들을 돕고 섬기고,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지체일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한 믿음, 한 영, 한 마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막의 책무를 맡을 것이요”란 말씀은 레위인들이 제사장들과 연합하여 성막에서 섬기는 모든 일을 맡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유업의 상속으로 받지 않았던 것은 이들이 성막에서 full time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모든 일을 위해”란 말은 성소를 경비하는 일부터 청소하는 일, 물을 길는 일, 나무를 패는 일까지 모두 섬기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섬긴다.’는 말은 ‘일한다.’는 뜻입니다. “낮선 자는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라.”(4)는 말씀은 여러 차례 나오는 경고입니다. 성소에 나오는 일은 주 앞에 나오는 일입니다. 낮선 자는 이방인, 이교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또한 피와 희생물 없이 주 앞으로 나오는 이들을 다 포함합니다. 빈손으로 주 앞에 나와서도 안 됩니다. 성소의 규례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나오는 이들 역시 낮선 자에 해당합니다. 레위인들은 회중의 한 가운데 있는 성막에 백성들이 함부로 나아오지 못하도록 경비를 썼습니다. 형제들 중에 부정하게 된 자들이 성막으로 가까이 나오는 일도 금지됩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성소의 책무와 제단의 책무를 맡으라. 그리하면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5).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의 책무와 제단의 책무를 맡으라고 하셨습니다. 성소 안의 모든 일, 그리고 제단과 관련된 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제사장들)이 맡아서 해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이들의 책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타락하고 배교한 이스라엘은 주께서 정하신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열왕기상 12:31절, “그가 또 산당들의 집을 짓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며”(왕상12:31). 여로보암은 자기들 가운데 있는 레위 사람들이 아니라 백성들 중에 가장 천한 자들, 누구든지 원하기만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이 있는 뒤에도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금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산당들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를 구분하여 산당들의 제사장들 중의 하나가 되게 하였으므로”(왕상13:33). \*왕하17:32. 제사장직의 타락은 단순히 종교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가, 민족, 백성의 흥망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주께서 이를 명하셨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독점적으로 영원히 주어진 책무입니다. 성소의 책무와 제단의 책무란 성소와 관련된 주의 법, 제단에 관련된 주의 법에 따라 주께서 명하신 일을 하라는 것입니

다. “그러하면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5).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책무와 제단의 책무를 맡아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의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제사장들의 책무가 이스라엘 자손의 안녕, 평안, 번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하거나 배교하면 백성들 역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성소와 제단의 책무를 주신 것은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복을 받고, 주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6절입니다. “보라, 나 곧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 형제들 즉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주}를 위한 예물로 그들을 너희에게 주어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나니”(6).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아론의 형제들인 레위 사람들을 취하셨습니다. 주님은 장자인 르우벤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으셨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대속물로 취하셨습니다. “(나는 {주}니라.) 너는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가운데서 모든 첫 새끼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민3:41). 주님은 레위 사람들을 취하셔서 주를 위한 예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섬기는 자들로 주어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것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지키라. 내가 너희의 제사장 직무를 너희에게 섬김의 선물로 주었은즉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7). 주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것에 대해 제사장의 직무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의 직무란 주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하라고 주신 일들에 관한 것으로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 성소 안에서 등잔대의 불을 관리하는 일, 테이블에 빵을 진열하는 일,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일 등입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희생물을 드리는 일이 모두 제사장의 책무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주신 책무를 지켜야 합니다. 다른 누구에게 위임할 수도 없고, 싫다며 은퇴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제사장의 직무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섬김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섬김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섬기는 일은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섬김의 선물**”이란 말에 주목하십시오. 섬김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우리는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주께서 주신 직무를 지켜야 합니다. 크리스천들로서 이 직무를 버려두거나 포기해 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